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세익스피어(제5권)=시대와 인물을 대표하는 국내외 인물의 행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아이 세움 역사인 물' 시리즈의 제5권. 로네상스 시대가 놓은 세계문학의 대명사 세익스피어의 삶과 문학세계를 다룬다. (아이세움·8천500원)

▲맹꽁이 인물열전(5·6권)=맹꽁이 서당으로 유명한 만화가 윤승운씨가 내놓은 위인들의 이야기. 5권 '사고력을 키워주는 역사인물들'에서는 논리적이 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탐관오리를 계도했던 암행어사 이종백, 개혁사상을 펼쳤던 정약용의 일대기 가 담겨 있다. 6권 '바른 예절을 키워주는 역사인물들'에서는 최초의 서원을 세운 주세붕, 구운봉으로 유명한 문장가 김중 등이 실려있다.

<웅진주니어·각 8천500원>

▲고래는 왜 노래를 부를까요?=바다 속 생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바다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의 옥심까지 바다 속 생생체에 관한 궁금한 점 43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다. (다섯수레·7천500원)

▲중세기사 어린이는 어떻게 살았을까=고대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는 역사학습동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전 서유럽 어린이들의 삶을 역사사료에 상상력을 가미해 흥미롭게 그려냈다. (어린이작가정신·8천500원)

▲앉아서 지구의 크기를 재다=세계를 바꾼 역사와 세계 곳곳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고 발달하는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태풍, 화산과 쓰나미, 엘니뇨와 라니나 등 자연과 관련된 지리적인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어썼다. (아이세움·7천500원)

조선의 궁중 무희 佛 공사와 결혼하다

리심, 파리의 조선궁녀 김탁환 지음

'궁중 기생들은 유럽인의 눈으로 봐도 정말 아름답다. 한 유럽인 공사는 어느 궁중 무희의 매력과 우아한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고종에게 그녀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공사는 조선 여인과 함께 길을 나선다. 이를 부부는 몇 년 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조선에서 노비 신분이었던 그녀는 궁중 무희로 되돌아가야 했고 결국 금조각을 삼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세기 말 조선의 2대 프랑스 공사인 이포리트 프랑탱의 회고록 '한국에서'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궁중 무희 리심이 초대 프랑스 공사 빅토르 풀랭 드 플랑시의 아내가 돼 유럽에 갔다가 5년 뒤 돌아와 자살했다.

프랑스 땅을 밟은 한국 최초의 여인 리심이 소설가 김탁환에 의해 활생했다.

고종·명성황후·김옥균·홍종우...

구한말 실존인물 등장 재미 배가

'리심, 파리의 조선궁녀'(전 3권)는 궁녀에서 파리 사교계의 주목을 받은 동양인 외교관의 아내로 살다 다시 궁녀 돼야 했던 리심의 기구한 삶과 사랑을 다투고 있다. '불멸의 이순신'으로 유명한 저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플랑시 부부의 발자취를 따라 파리와 모로코의 탐험 등을 해집어야 했다.

임청난 양의 조선 고서를 사모으는 등 수집癖을 갖고 있던 플랑시였지만 리심에 대한 기록은 프랑탱의 회고록 이상 없었다. 저자는 리심이 닦았을 길과 머물렀던 집을 하나하나 되밟아 가야 했다. 이같은 저자의 노력은 리심의 1인칭 여행기 형식을 띤 '제 2권'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프랑탱의 회고록은 '리심은 서양 문물의 놀라움을 기록해 언젠가 출판하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소설의 재미와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다. 리심의 첫 남자인 고종과 리심의 정신적 지주였던 명성황후,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망명한 김옥균, 김옥균을 살해한 파리 유학과 홍종우 등이 리심과 어



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살피는 것도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 시인 램보와 영화를 발명한 뮤어로 형제도 소설 속에 흔적을 남긴다.

소설은 기획 당시부터 영화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샀다. 영화화를 위해 LJ필름과 나우필름이 2008년 개봉을 목표로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소설은 저자가 계간 '세계의 문학' 여름호와 가을호에 두 차례 연재했던 것을 묶은 것이다.

연재 당시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신경숙의 다른 작품 '이진, 푸른 눈물'이 역시 영화화를 전제로 조선일보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구한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각기 다른 작품과 장르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소설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리심과 결혼한 초대 프랑스 공사 빅토르 풀랭 드 플랑시.

연재 당시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신경숙의 다른 작품 '이진, 푸른 눈물'이 역시 영화화를 전제로 조선일보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민음사·각 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헤르만 해세 '싯다르타'

교양서적이나 소설류의 책을 두 번씩 읽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같은 책을 두 번 읽는 것은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리라. 내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읽은 책은 세 권이다. 헤르만 해세의 '싯다르타'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것이다. '짜라투스트라'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했던 것을 대학 철학과에 다닐 때 다시 읽었고, '분노의 포도'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읽었을 것을 소설가가 된 후 다시 읽었다.

해세의 '싯다르타' 역시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고 73년 소설 습작을 할 때 다시 읽었으며 83년 KBS TV의 '신왕 오진죽전' 취재팀으로 인도에 갔을 때 3번 째 읽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싯다르타'를 처음 읽으면서 나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처음 나온 책을 만나면 달달 외우는 것이 유행(?)이었다. 6·25의 후유증이 미쳐 아물지 않았던 때라, 문학소년들에게는 새 시집이나 소설책이 출간되면 화제가 되기

석가의 깨달음에 가까이...



도 했다. 내가 '싯다르타'를 산 것은 59년 가을 삼복서점에서였다.

같은 문예부 친구였던 이성부(시인)가 먼저 알고 귀띔해 주었다. 이성부와 나는 '싯다르타'를 사들고 설레는 기분으로 사직공원으로 올라가 외우기 시합을 했다.

'싯다르타'는 흔히 해세의 '파우스트', 또는 해세의 '짜라투스트라'로 불리운다. 이 작품은 60년대 해세 붐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 독서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싯다르타'는 세존(世尊) 즉 석가모니의 속세 이름인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싯다르타'로 하여금 석가인 '고타미'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 '인도의 시'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불법(佛法)의 심오한 세계를 시작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불교정신의 본체가 본질적으로 잘 나타나 있고 윤리, 해탈, 열반 등의 개념을 가장 정통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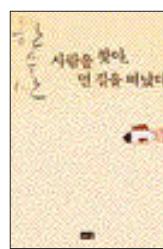
"그는 지금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자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오색이 친란하고 기적과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에는 푸른이 있었고 저기에는 노랑이, 이쪽에는 초록이 있었다. 하늘은 흐르는 것 같았고 강물과 숲이 고요한가하면 산들이 솟아 있었다. 모든 것은 아름답고 이상했고 불가사의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그는, 싯다르타는, 즉 잠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고 난 직후 싯다르타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본질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잠자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네 번째 다시 읽고 싶다.

문순태
<소설가>

삶의 여정서 만난 '아름다운 인연들'

사람을 찾아... 한수산 지음



소설가 한수산씨가 삶에서 만난 아름다운 인연들을 엮은 수필집 '사람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를 펴냈다.

백두산 천지에서 세례를 주었던 이경재 선부, 문학청년 시절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황순원 선생 등이 등장하

지만 가장 큰 유통을 주는 민족은 대학교 때 은사였던 박용주 선생과의 인연이다. 박씨는 '한수산 필화사감'으로 고문을 당하고 피폐해졌을 때를 비롯, 평생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취재여행 중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한 귀한 경험이다. 400년 간 도자기에 흔을 불어 넣어 온 도공 심수관 일가, 9천288km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며 만났던 동포들, 쿠바와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서 만난 유민(流民)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펼쳐진다. 화가 이순형씨의 그림이 함께 실렸다.

<해님·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의 잃어버린 소중함 일깨우기

인생의 놓쳐버린... 조비테일 지음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케팅 전문가 조비테일이 신간 '인생의 놓쳐버린 교훈'을 통해 현대인이 잊고 살아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우친다.

책은 저자가 살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마다 수첩에 적었던 것을 정리한 것. 저자는 "이 책은 중년에 이른 한 남자의 사색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내가 사는 내 인생, 개인처럼 살다 놓쳐버린 것들, 남을 도우면 산다는 것,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최고를 위해 해야 할 것들,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삶의 굴곡에 대처하는 방법, 행복한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우리에게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

<비즈니스·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랜드

☎ (061) 923-7011 ~ 922-2213
(전화번호 대상여고와 동성고부분사이)

관악지역(답답한 870평 규모)
·답답한 부지(면소재지)·답답한 첫층

1200세대 APT 1층상가 16평

·나주대 호수 1층 8평짜리 2층(슈퍼, 식당, 세탁실 등) 16평 16평 16평

회순은 농가주택 187평

·다자녀 부지 187평 학교 25평 웅자 25평 웅자 25평

2000평 대가 8천만원

마산신관리(유자우수원 1500평)

·완도·고군도·영도 800평 등 4종전 120평

전주시내 APT 입구 상가부지 380평

·1000평 규모의 편의점 1000평

전주시내 APT 입구 상가부지 380평

·전주시내 APT 입구 상가부지 380평

전주시내 APT 입구 상가부지 380평